

畜産物消費性에 관한 調査報告要約

— 都市家口 中心 —

축산진흥회 조사부

이 보고서는 축산진흥회 조사부가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동기로 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그 행태 분석과 가격 반응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닭고기의 포장육 판매를 희망하고 있으며 수입고기가 싸고 맛도 괜찮다는 중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려하는 쪽이 41%나 되었음이 특기할만하다.

1. 축산물 購入行態

○ 축산물의 구입동기를 보면 “가족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라는 대답이 어느 축산물의 경우든 응답자의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대답은 육류에서는 “손님접대”와 “제사, 결혼 및 생일의 순서를 보였고 우유나 계란의 경우는 “간식이나 식사대용”의 순서를 보였음.

○ 구입여부나 구입량의 결정은 주부 단독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편이 대부분이었음.

○ 구입시기를 보면 “필요할 때” 산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며 다음이 “월급이나 수입이 있을때”의 순서로서 충동적 구매는 미미하였음.

○ 구입빈도를 보면 육류는 대부분 월 2~3회였으며 우유는 14회, 계란은 5회 정도 였고 특히 쇠고기는 월 5회이상이나 구입하는 가구도 16%나 되었음.

○ 1회 평균구입량은 쇠고기, 돼지고기는 1근, 닭고기는 1마리 정도로서 아직도 재래식 시장거래단위가 지배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생일” 때나 “선물”로 쇠고기를 보다 많이 구입하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명절때”나 “선물”로 돼지고기를 보다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적으로 볼때는 대도시에서 전자의 경향이 많았고 소도시에서는 후자의 경향이 컸음.

2. 축산물 거래行態

○쇠고기가 돼지고기의 주구입처를 볼 때 일반 정육점 이용율이 응답자의 85% 내외로 가장 높은 반면 농협축산물 직매장이나 슈퍼마켓의 이용율은 10% 내외로 낮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기 때문이며 이용해 본 응답자들의 농협 직매장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았음.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약 86%가 단골을 두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대부분 “신뢰하기때문”이었고 “거리가 가까워서”도 23%나 접하였음.

○닭 및 닭고기의 주구입처는 닭집이나 시장노점이 대부분으로서 정육점 이용율은 2.4%에 불과하였다. 계란은 시장이나 구멍가게에서 대부분 구입하고 있었으며 행상인의 이용율도 15.4%나 있었음.

○닭이나 계란의 경우 응답자의 80% 이상이 단골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닭고기의 구입형태를 보면 산닭을 구입하는 것과 도제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각각 69%와 31%로서 대부분 산닭을 지정하여 그 자리에서 도제구입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를 보면 대부분 “변질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음.

○정육점에서 값을 지정가격보다 올려 받을 경우에 대한 반응을 보면 23.2%의 주부만이 그곳에서 사지않거나 가격을 다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74.3%의 대다수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하였음.

○그리고 이때의 신고율은 7.8%에 불과하며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부분 “신고해봐도 시정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였음.

○하등급육(기름등)을 섞어파는데에 대한 반응을 보면 33.2%가 소극적 이나마 관심을 갖고 견제하는편일뿐 61.3%는 정육점의 부조리를 기대로 받아주고 있으며 특히 돈을 더주고 살고기만 사는 주부도 12.6%나 되었음.

○육류구입시 계량의 확인은 42%정도가 하는 편이며 근량부족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대로 사오는 주부가 48%나 되었음.

3. 축산물 가격반응과 대체관계

○축산물 가격수준에 대한 응답자 의견을 보면 대부분 “비싸다”는 단순한 반응을 보였으며 주요육류의 정부지정가격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5%가 “계속가격을 묶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특정축산물만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대한 응답자 반응을 보면 “구입량을 줄이겠다”는 의견이 쇠고기는 70.9%, 돼지고기가 53.2%, 닭고기가 50.9%였으며, 대체소비의사는 쇠고기가 8%인데 반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9%와 16% 수준이었고 “변함없이 구입하겠다”는 응답도 육류에서는 20%내외였지만 특히 우유나 계란은 각각 43% 44%나 되어 대부분 필수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음.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가격상승에 대한 구입량 변동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육류에 대해서 가격상승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때의 반응을 보면 쇠고기는 가격상승폭이 낮을때는 구입량의 감소정도가 낮지만 가격상승폭이 커질수록 감소정도가 컸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이와 반대경향임을 엿볼 수 있었음.

○가격상승에 따른 육류의 대체품목 순위를 보면 쇠고기의 대체품목으로는 돼지고기, 생선, 닭고기가 제시되었으며 돼지

고기의 대체품목으로는 생선, 닭고기, 기타육이 그리고 닭고기의 대체품목으로는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가 각각 제시되었음.

4. 축산물 소비行態

○주요육류의 부위별 인식정도, 요리경험으로 보아 그 선호도를 보면 쇠고기는 등심, 갈비, 안심의 순서로 그 선호도가 뚜렷하였고 돼지고기는 삼겹살, 갈비, 뒷살의 순서였음.

○육류의 종별 선호성을 보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순이며 돼지 고기나 닭고기를 특히 싫어하는 주이유로는 “체질상” 또는 “질환때문”을 들고 있었음.

○축산물 소비의 계절별 편중성을 보면 주로 쇠고기는 “사철” 소비하는 반면 돼지고기는 “겨울”, 닭고기는 “여름”에 대부분 소비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우유나 계란은 “사철” 소비하는 축산물이었음.

○육류를 구입하여 집에서 주로하는 요리의 순위를 보면 쇠고기의 경우 불고기, 탕, 찌게이었으며, 돼지고기는 불고기, 찌게, 볶음 그리고 닭고기는 찜, 볶음, 탕의 순이었음.

○응답자가운데 정식으로 요리강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주부는 20.3%에 불과하였으며 요리법을 주로 배우는 수단으로는 “집안어른”이나 “친지 혹은 이웃”에게서 배우다는 주부가 66.4%였으며 요리강습을 받아본 주부라도 그 활용성은 낮았고 비교적 젊은층의 주부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육(토끼, 오리, 양, 염소, 개)의 소비경험을 보면 토끼고기의 48.5%를 비롯하여 개, 염소고기의 순이며 소비의향

으로 보면 토끼고기의 43.1%를 비롯하여 염소, 개고기의 순이었음.

5. 등급 및 포장육에 대한 의견

○육류의 등급별 판매에 대한 의견을 보면 찬성하는 편이 72.4%로 지배적이며 나머지 반대하는 응답자라해도 그 주된 이유는 단지 “등급구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속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등급구분의 방법으로는 부위와 질에 따른 등급을 대부분 희망하였음.

○포장육에 대한 호응도는 특히 쇠고기와 닭고기에서 높았으며 이를 위한 중량단위는 “다양하게” 용기로는 “비닐제품”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6. 수입육에 대한 반응

○육류수입에 대한 의견을 보면 도시가 구중심의 조사인데도 가격상승을 의식하고 찬성하는 쪽은 50%밖에 안되며 국내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려하는 쪽이 41%나 되었음.

○수입고기와 국내산고기를 몇가지 요인에 따라 반응을 비교해 보면 “수입고기의 가격이 싸다.”는 편이 쇠고기경우 84.3%, 돼지고기는 87.8%이며, 고기질은 “괜찮다”는 쪽이 쇠고기는 82.2%, 돼지고기는 87.4%였으며 맛은 “나쁘다”는 의견이 쇠고기가 41.8%, 돼지고기는 30.3%였음.

다음으로 기름기는 “기름이 많다”가 쇠고기의 경우 35.4%나 되었으며 돼지고기는 23%였으나, 냄새에 대하여는 “냄새가 없다”나 “약간 나지만 먹을 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쇠고기 경우는 색깔에 의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음.